

건강 칼럼

기후변화와 건강관계는?

몇 년 전부터 ESG경영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약자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가, 사회적으로 왜 ESG가 대두되고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기상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계절감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여름철이 1980년대 113일에서 127일로 14일 증가하였고, 겨울철이 102일에서 87일로 15일 감소하였다. 즉 지구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적으로 보아도 4~50여 년 전 겨울은 손이 얼어터질 정도로 추웠었는데 요즘 겨울은 그리 혹독한 추위가 별로 없는 듯하다. 오죽하면 단지 영하로만 내려가도 기다렸다는 듯이 '강추위'라고 호박집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있지 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서서히 우리 곁에서 진행되어 왔고, 현재진행형이다. 난류 대에나 잡히던 어류가 남해안에서 잡히고 동해안의 한류 대에서 잡히던 명태나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또한 과일도 예전에는 경북 대구가 사과 주산지였으나 정착 지금의 대구에는 사과나무가 지금 거의 없으며 경작지가 계속 매년 10km 북상하여 강원도 양양, 고성에서도 경작이 되고 있다. 과거 20여 년 동안 온난화에 따라 200km나 북상한 결과이다.

지구온도가 1℃ 오를 때마다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현재보다 1℃ 상승할 경우 북극의 얼음이 절반 줄어든다. 2℃ 상승하면 환경변화에 취약한 열대우림 생태계부터 타격을 입는다.

즉 산소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3℃ 상승하면 해수면이 약 20~25m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바닷가 부근의 어촌, 도시는 서서히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남태평양의 "투발루" "피지" "키리바시" 인도양의 "몰디브" 등이 서서히 잠기고 있다. 4℃ 상승하면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급격히 증가한다. 5℃가 상승하면 양 극지 빙하가 모두 녹고 지하대수층도 고갈이 될 것이다.

즉 먹고 마실 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상승하면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몸은 외기환경에 따라 적응을 하며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적응, 진화한다는 의미이다. 내, 외부의 변화에 따라 생명현상에 필요한 내적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 (Homeostasis)이 작동된다.

이러한 항상성도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지속되면 항상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신체의 반응이 일어나며 안전한 방향으로 적응(Adaption)을 향해간다. 이런 과정과 상태를 '생체안정성' (Allostasis)이라 하며 진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지구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먼저 식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달걀이나 소화가제의 작동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생체안정성'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연히 뇌, 심장, 호흡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열의 발생을 줄이거나, 열의 소실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기온의 상승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인체는 지금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각 기관이 매우 혼란스럽고 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될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최소한의 '생명유지'에도 적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제언

피싱 범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의 보급, SNS의 활성화,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피싱(phishing) 범죄도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피싱 범죄 발생건수 4만16,666건, 2021년 5만151건, 2022년 4만2,011건, 2023년 11월 기준 3만2,770건이 발생했습니다. 23년 11월 기준 발생유형으로는 메신저 피싱 37.8%, 전화금융사기 중 대면전취 20.1%, 상품권 등 요구 18.5%, 계좌이체 11.3%, 몰캠 피싱 10%의 유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피싱범죄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첫째,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일절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관련 문자가 올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반드시 송신자를 확인 후 열어야 합니다.

셋째, 절대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112), 은행 고객센터,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싱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IT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피싱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도 최선을 다해 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영길 고창경찰서 수사과형사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그리스서 열린 파리올림픽 성화 채화식



16일(현지시간)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성화 채화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성화 채화는 호리 날씨로 인해 전날 자연 채화된 예비 불씨로 대신 진행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선거비용 보전

이번 4.10.총선에서 비록 낙선은 했으나 선거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보전받는 후보자들이 있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는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전북에서는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득표율 10% 미만으로 떨어진 후보가 13명에 이른다. 이들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강성희 의원(전주, 11.50%) 등 8명은 득표율이 10% 이상이지만 1%가 안 돼 선거비용을 절반만 보전받는다.

낙선했어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정운천(전주, 20.63%), 이인숙(완주, 15.70%) 등 2명의 후보는 당선인 10명과 함께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는다.

한편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득표율 13.84%를 기록해 선거비 절반만 보전받게 됐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약속한

번 하지 못한 소나무당 송영길 광주서구갑 후보는 17.38%를 얻어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 23.66%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일 후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역구에서 1% 이상을 득표해야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 준다.

선관위는 금품선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제작, 명암, 선거운동원 인건비, 기금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제외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실사를 거쳐 6월 9일 안에 보전해 준다.

도내 어느 총선 후보의 낙선인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효자, 삼천, 서신)에 출마해 낙선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인사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과고를 결국 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정 후보는 "충청도와 같이 여·야 양 날개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고 싶었지만, 못다 이룬 꿈으로 남게 됐다"면서 "호남의 여당 대표로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기서 물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힘든 선거였지만 2만8천여 명이 선택해주신 소중한 가치를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정운천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자신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죄인을 자처했다.

그 뒤 사과를 하고 합계에 탄 뒤 (오직 전북)이라고 현서까지 썼다. 그러나 끝내 3선 도전에 실패했다. 그는 정부, 여

당과의 소통 창구론을 앞세워 선거 기간 내내 간절히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의 벽에 가로막혀 뜻을 접게 됐다. 그의 쌍발톱 정치도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잼버리 실패 이후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식 책임 떠넘기기와 절차까지 무시한 국가 예산 삭감도 문제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른바 쌍발톱 정치를 외쳐온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여당 후보들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됐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특별법과 탄소법, 전북특별법 같은 전북의 주요 법안과 현안, 예산 확보 등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그는 마지막까지 정부, 여당과 최소한의 창구는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정 의원의 의정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됐다. 당내 호남 정책을 주도해 온 정 의원의 퇴장은, 국민의힘으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